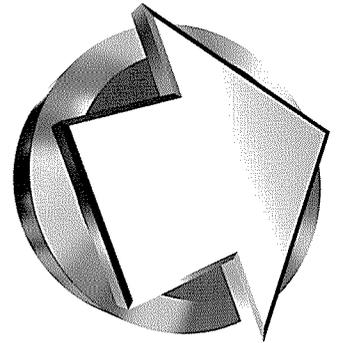


슈퍼컴퓨터 'TOP 500' 리스트 분석

미국은 날고 중국은 뛰고, 한국은 걷고 일본은 뒷걸음



1년에 2회 갱신되는 슈퍼 컴퓨터 리스트 Top 500의 새로운 순위가 발표되었다. 1위는 최근 70.0 테라플롭스의 놀라운 속도를 보여준 IBM의 블루진(BlueGene)/L이 1위를 차지하였다. 블루진/L은 미국 에너지부의 핵 관련 연구 테스트에 사용되며 구축이 완료되면 미 국방부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로 이동되게 된다.

또한 슈퍼 컴퓨터들의 성능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단위 시스템의 최저치는 624.3 기가플롭스(Gf/s)에서 850.6기가플롭스(Gf/s)로 높아져 바야흐로 페타플롭스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순위	컴퓨터명	프로세서	제작사	제작년도	국가
1	BlueGene/L beta-System	0.7Ghz Power PC440	IBM	2004	미국
2	Columbia	SGI Altix 1.5 Ghz, Voltaire Infiniband	SGI	2004	미국
3	Earth-Simulator		NEC	2002	일본
4	MareNostrum	eServer BladeCenter JS20 (PowerPC970 2.2 GHz)	IBM	2004	미국
5	Thunder	Intel Itanium2 Tiger4 1.4 GHz-Quadrics	California Digital	2004	스페인
6	ASCI Q	ASCI Q-AlphaServer SC45, 1.5GHz	HP	2002	미국
7	system X	1100 Dual 2.3 GHz Apple Xserve/Mellanox Infiniband 4X/Cisco GiqE	Virginia Tech	2004	미국
8	BlueGene/LDD1 Prototype	0.5GHz Power PC440w/Custom	IBM	2004	미국
9	eServer Pseries 655	1.7GHz Power4+	IBM	2004	미국
10	Tungsten	PowerEdge 1750, P4 Xeon 3.06GHz	제작사	2003	미국

■ 슈퍼컴퓨터 Top 500 중 Top 10

한편 한국은 100위 내에 과기원에 설치된 Xeon 2.4GHz Myrinet 슈퍼컴이 3테라플롭스의 성능으로 64위, 기상청의 크레이 X1 시스템이 2.4 테라플롭스의 성능으로 86위로 2개의 슈퍼컴퓨터가 등록되어 있다.

국가별 종합 성적은 총 퍼포먼스 기준으로 미국이 68만6733Gf/S로 1위, 일본이 9만5004Gf/s로 2위, 영국이 8만2928Gf/s로 3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1만6356Gf/s로 9위에 랭크되었으며 중국은 3만1937Gf/s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슈퍼컴퓨팅 500대 리스트에 포함된 컴퓨팅 환경을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는 반기마다 1.5배 가량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